

자연에서 삶을 사색하다

이태후

놀랍다.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는데 150여 코스모스 중 3송이에서 꽃이 피었다. 내가 아파트 놀이터 옆에 3㎡ 넓이의 화단을 만들고 씨앗을 심은 지 50여일 만이다. 키가 20여 센티미터 정도, 줄기는 이쑤시개 굵기인데 그 여린 몸에서 꽃을 피웠다.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 반가운 벗의 소식을 들은 기분이다. 만나서 차 한잔하자는 제안만큼 흥분되는 일이었다. 친구를 약속장소에서 기다리는 설렘으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즐지어 핀 꽃들을 볼 수 있겠다는 상상에 마음이 설렌다.

나는 걷는 것을 좋아한다. 산책하듯이 하이킹하듯이, 또 가끔은 도보 여행하며 며칠을 산속에서 지내기도 한다. 이런 나에게 배란대를 통해 볼 수 있는 연경산은 최적의 장소이다. 우선 가까워서 좋다. 집에서 나와 학산초등학교를 건너고 정광아파트를 지나면 연경산 입구인 '학교을 큰 바람터널'이다. 여기까지 7분이면 된다. 연경산을 오를 때 이곳을 이용한다. 터널을 지나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 왼쪽으로 스승약수터가 보인다. 약수터를 지나 가쁜 숨을 참고 5~6분 오르면 노적봉과 송도역, 연경정으로 가는 갈림길을 만난다. 나는 주로 연경정쪽 능선을 탄다. 집에서 연경정까지 약 2Km다. 다시 연경정에서 삼호연을 거쳐 문학산 정상까지 가면 왕복 6Km로 1시간 내외로 운동 겸 산책하기에 적당하다. 낮이 짧은 한겨울을 빼고 주중에는 퇴근 후에, 주말에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 작은 배낭에 땀을 식힐 커피를 연하게 준비해서 다니곤 했다. 연경산은 내가 봄의 정령을 만나는 곳이며 여름의 시작을 알려주는 곳이다. 또 9월의 시원한 가을바람을 느끼게 하는 곳도 겨울의 낙엽 향을 만나는 곳이다. 난 연경산의 4계를 보고 느끼며 산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산책이나 산행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지금

도 사람들이 뜬 시간을 이용해서 다닌다.

자연 안에서 걷고 즐기는 건 나의 오래된 습관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같이 유학 온 친구들이 도심에서 만나자고 하면 고향인 양평에 내려가서 우리가 즐겨 놀았던 동네 앞산인 갈산공원에서 만나자고 했다. 고향 집 근처의 야트막한 산인 갈산과 그 주변의 강변길은 내가 공부로 지쳤을 때, 일로 힘들었을 때, 힘이 되는 장소였다.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으로 기운을 얻고 갈산과 남한강변 길을 걸으면 머리는 맑아지고 가슴은 시원해졌다. 인천에 정착한 후에는 연경산이 그런 장소가 되었다. 갈증을 풀어줄 커피가 든 작은 가방을 메고 모자를 쓰고 걸으면 고향의 길을 걷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상쾌해졌다. 주말에는 강화나 김포도 가고 어린 시절을 보낸 정겨움과 그리움이 남아있는 양평을 가기도 했다. 수도권 근처의 숲길을 찾기도 한다. 도시의 숲길도 작은 강가의 산책길도 좋다. 나와 아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는 방문하기 좋은 장소에 대한 정보와 우리가 다녔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 언젠가 우리는 시간이 되는대로 걷기를 떠난다. 그런 면에서 아내는 내 인생 한결같은 동반자이다.

휴가 때는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때도 자연을 많이 찾는다. 그런 여행 중 하나가 스위스 인터라켄 주변의 숲길을 걸은 여행이었다. 우리는 인터라켄에서 산악열차를 타고 만년 빙하로 덮인 융프라우에 올라갔다. 스위스는 우리나라보다 산이 많다. 내 고향 양평도 태백산맥과 광주산맥으로 이어진 지역이라 산이 높고 많다. 나는 집에서 보이는 용문산을 기차 타고 오르는 상상을 하며 산악열차를 탔다. 우리의 목적은 융프라우 정상에 만년설을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곳에서 내려오면서 마을과 마을로 이어지는 산길과 숲길을 따라 걷는 것이었다. 우리는 계획대로 인터라켄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의 기차역에서 내려서 걸었다. 아내는 큰아이와 이야기를 하며 걷고 난 작은 아이와 손을 잡고 고

향 숲길을 걷듯이 스위스 산악마을의 오솔길을 걸어서 내려왔다. 종종 소의 워낭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벤치에 앉아 쉴 때는 내가 풀을 뜯기고 여물을 주었던 소들이 생각났다. 스위스 소들이 평화롭게 풀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건초더미에 앉아 말았던 고향의 마른 풀 향기가 났다.

체코 여행길에는 체스키크롬플로프에 갔다. 이 곳은 체코 내륙에 있는 농촌 마을로 유럽의 중세시대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작은 고성과 그 앞에 흐르는 강과 주변의 붉은 벽돌 위주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과 다르지만, 자연에 둘러싸인 마을은 첫인상부터 평온하고 한가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나는 여장을 풀고 마을을 산책하고 주변의 들길과 하천 길을 걸었다. 작은 고성 안의 잘 가꾸어진 큰 정원도 보았다.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감탄하다가 작은 마을에 이런 고성이 중세에 있었다는 생각에 이르니 그 당시 마을 사람들이 겪었을 삶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런 생각이 들자 바로 우울해졌다. 특히 마녀로 누명을 씌우고 잡아 온 사람을 사형시키기 전까지 가두는 감옥을 보고는 더욱 그랬다. 내가 있는 이곳이 누군가에게는 죽음과 만나는 고통의 장소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늘 아래 처음인 것이 없듯이 하늘 아래 아픔이 없는 곳은 없다. 어쩌면 우리가 아름다워 하는 곳의 뒷모습이 아픔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시 체코를 간다면 이곳에 다시 가야겠다. 다시 그 길을 걷고 성당을 방문해서 억울하게 박해받거나 고통 받은 이들,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

4년 전 여름휴가 때에는 부탄에서 4박 5일 동안 도보여행을 했다. 대자연 안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현지 안내인과 짐을 나르는 말들의 도움을 받으며 숲속 생활을 하였다. 온종일 걷고 지치면 쉬고 때가 되면 계곡의 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주로 고추, 감자 등 채소와 치즈를 밥과 섞어 만든 소박한 부탄식 볶음밥이었다. 숲속을 걷고 산속을 걷는

여행이었다. 울창한 처녀림을 만나고 천둥 같은 소리로 존재를 알리는 계곡을 지나갔다. 이름 모를 풀과 꽃의 향기를 맡고 시원한 바람으로 땀을 식혔다. 트레킹을 하는 동안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전화도 사용할 수 없는 첩첩산중이었다. 해발 2000m와 4000m 사이를 오르내리는 여정이었다. 나무와 풀과 새들의 지저귀미 가득한 산속의 숲속을 온종일 걸었다. 첫날은 온종일 오르고 다음 날은 온종일 내려갔다. 그래도 끝이 없었다. 저녁이 되면 숲속에 텐트를 치고 저녁을 먹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나무 사이로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 고향을 떠나 도시로 온 이후 보기 어려웠던 하늘이었다. 계곡의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면 물소리와 바람 소리와 함께 꽃 향과 풀 향이 피곤한 몸에 휴식을 주었다.

나는 지난봄에 퇴직했다. 30여 년의 익숙했던 생활을 접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였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자유가 많이 위축되었지만 그런데도 퇴직 후의 자유가 주는 모습을 그리며 기대가 컸다. 마음껏 숲과 공원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한적한 자연휴양림에서 아내와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여유로운 생활을 계획했다. 그 생각대로 3월에는 광양 매화마을과 섬진강 주변의 숲과 꽃길을 걸었다. 5월에는 제주도 올레길과 꽃자왈, 오름을 걸었다. 코로나로 인해 제약이 많았지만, 은퇴자로서 시간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기에 가능했다. 그런데 그것도 5월이 넘고 6월이 되면서부터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은 폐쇄되었다. 7월 중순, 위축된 생활을 달래볼 생각으로 놀이터 옆에 화단을 만들고 코스모스 씨앗을 심었다.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 4~5일이면 싹이 난다고 했는데 기다리던 새싹이 보이지 않았다. '흙을 많이 덮어주어서 싹이 나지 못하나?' 생각했다. 아니었다. 7일이 되는 날 아침, 드디어 새싹이 보였다! 너무나 반가웠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두꺼운 흙을 비집고 나온 모습이 대견했다. 지금까지 자연에서 만났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이렇게 나고 자란 것이다. 내가 가진 관심이 대상을 새롭게 만들었을 뿐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저절로 혼자 되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풀 한 포기도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또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은 없다.'라는 생각도 했다. 코스모스도 땅을 비집고 나오기 위한 자신의 몸부림이 있었으며 뿌리를 내리고 서 있을 수 있게 도와주는 땅이 있다. 또 그를 도운 것은 바람, 비, 하늘, 구름이기도 하다. 그 옆의 이웃한 풀이고 이웃한 나무들이고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은 많은 생명일 것이다.

놀이터 앞 숲에서 매미가 운다. 17년의 기다림을 마치고 운다. 여름 내내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운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운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매미 소리가 그쳤다. 대신 비가 온다. 매미도 오늘 밤은 쉬 수 있겠다. 덕분에 내일 아침엔 더 많은 코스모스가 피어있겠다.